

아침세평

김요수

광주연합기술주주 대표



매미가 우렁차게 노래하고, 잠자리가 떼 지어 노닐다 짝짓기를 하면 더위 막바지다. 초상 때부터 관찰해온 통계의 집약이다. 가을결이 준비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통계가 지혜로 바뀐 일이다.

집집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다. 김장하는 집, 가족이 많은 집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외식이 잦거나 혼자 사는 집은 음식물쓰레기가 적다. 얼마 전까지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비용은 똑같았다.

옆집 사람들끼리 불평등하다며 입을 모았다. 언제부터인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돈을 다르게 낸다.

좋은 수다가 정책이 된다. 그런 수다가 댄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정보가 모이면 정책이 되고, 정책이 되면 더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어느 젊은이가 불평한다. 아침이면 우리 동네에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이 많이 나뒀다고.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을 거꾸로 쌓아놓는 기둥을 곳곳에 놔두면 좋겠다고 해결책도 말한다.

관찰을 함으로 불편한 점을 찾아내고 대안까지 마련한다. 당장 정책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관찰을 정리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

데이터가 밥 먹여준다

어느 잘사는 동네에 자장면집이 없다. 자장면집이 없으니 짬뽕집도 없다. 커다란 중국 요릿집은 하나 있다. 시골에서 손짜장을 팔던 후배가 부자동네에 자장면집을 내고 싶다고 했다. 왜 없을까? 문제는 집세였다. 자장면 배달로는 집세 감당이 어려웠다. 또, 부자들은 비싸더라도 요릿집에서 대접 받으며 우아하게 먹기를 바랐다.

통계를 보니 자장면 배달은 이웃마을에서 한다.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장면 배달 관례가 생겨서 이제 부자마을에는 자장면집이 없어도 된다.

장사 성패에는 분석이 중요하다. 손짜장 후배는 어떻게 손님이 더 즐겁게 찾을 수 있을지를 연구했다. 아이들이 뛰노는 정원과 주차장을 늘려 주말 손님을 맞이했다. 분석을 활용했고, 지금 시골에서 손짜장면집을 잘하고 있다.

주가지수가 오른다고 너도나도 주식투자를 한다. 투자하고 나서, 내가 투자한 종목만 오르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분석하지 않고 통계만 따르면 그럴 수 있다.

평균과 통계는 일반적이어서 참고할 만하지만, 주관적 판단이 꼭 평균과 통계를 따라가지는 않는다. 평균과 통계의 합성이다. 평균을 나에게 적용시키기는 것은 무리고, 분석 없이 통계를 따르는 일은 어려서다.

평균으로 살면 만족감이 생기지만 내가 잘하는 일은 따로 있을 수 있으니, 남보다 잘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 통계대로 되지만 한다면 실패할 일은 없겠다. 통계는 객관적인 수치라서, 나에게 딱 떨어지는 일이 아니다.

또한 평균과 통계는 변화의 시대에만 적용된다. 갑작스

런 변화나 엉뚱한 사태가 생기면 적용하기 어렵다.

정보는 찾아야 한다.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모아야 한다. 모으기만 하면 아까워 버릴 수 없는 쓰레기가 될 수 있다. 모은 뒤에는 종류별로, 세대별로, 지역별로 정리해야 한다. 정리하면서 분석이 된다. 어디에 필요한 정보인지, 누가 필요한 정보인지, 분석을 하면 정보에 담긴 뜻을 읽을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담기는 정보는 시대에 맞는 데이터로 바뀐다.

분석을 하면 활용할 수 있다. 정치인이 활용하면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사업가가 활용하면 돈을 번다. 정보는 더 나은 삶과 더 안전한 삶을 이끌 수 있다. 세상일은 사람이 하나, 사람을 쓸 때도 정보가 필요하다. 일단 꼼꼼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인간관계까지 다정한 사람이 있다.

'돈'만 좇는 사람이 있고, '관'찰을 잘해서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 '칭'찬으로 덕을 쌓는 사람이 있고, '검'손으로 마음을 얻는 사람이 있다. '질'문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 '발'표로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한 가지만 잘해도 좋지만 평균과 통계를 뛰어넘어 성장하려면, '돈관청 결집발'을 잘해야 한다. 고려 광종 때부터 내려온, 한 번의 시험만 잘 봐서 성공하는 시대를 벗어나야 한다.

사람의 얼굴과 하는 말에서 얻은 정보가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고, 수다 떠다가 얻은 정보에서 돈을 벌기도 한다. 데이터가 밥 먹여주는 시대다. 나도 돈관청 결집발을 잘 해야 하는데, 짬!

기고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로, 거창한 목표보다는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청년들의 문화와 여가 활동은 이러한 가치관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삶의 균형과 개인의 행복은 물론 지역 문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된다.

오늘날 청년 세대는 물질적 소부보다 경험을, 경제적 성취보다 삶의 질을 중시한다.

안정된 직장이나 부동산 투자보다 여행, 공연, 전시, 취미활동 등에서 만족감을 찾고, 작지만 의미 있는 사회적 참여를 선호한다.

이는 전통적인 성공의 기준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을 구현하려는 새로운 흐름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년 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삶의 질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화와 여가는 이러한 가치관을 구현하는 핵심 수단이다. 단순한 여가 소비를 넘어 자기개발, 사회적 관계 형성, 지역 공동체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며, 청년이 지역에 머무는 이유가 된다.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연령, 34세까지 넓혀야

특히 비수도권 청년에게 문화·여가 기회는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인구 유출을 막는 실질적 유인책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기회를 넓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의 문화 참여 확대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공연·전시·출판·관광 등 지역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고령화 심화 상황에서, 청년이 매력을 느끼는 문화 환경 조성은 지역소멸을 막는 핵심 전략이다. 문화 기반이 탄탄한 도시는 청년 정착률이 높고 지역경제 회복 속도도 빠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남도는 2022년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사업을 시작했다. 연간 25만 원의 바우처를 통해 공연·영화·관광, 도서 구입, 학원 수강 등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며, 소득에 관계없이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재 지원 연령은 19세 이상 28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청년기본법의 만 34세 이하, 전남도 청년 기본 조례의 만 45세 이하와는 큰 차이가 있다. 올해 기준 전남에 2년 이상 거주한 19~28세 청년은 약 16만 명으로, 조례 기준 청년 인구(약 50만 명)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전남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했지만, 일부 시군은 다른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예로 영암군은 19~28세에게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25만 원을, 29~49세에게는 '영암군 청년문화수당' 지역

화액 20만 원을 각각 지급해 연령 구간에 맞춘 차등 지원으로 더 넓은 범위의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법과 조례가 청년으로 규정된 나이가 같은 정책에서 배제된다면, 이는 형평성과 신뢰를 모두 훼손한다.

특히 30대 초반 청년층은 취업 준비, 경력 단절 회복, 재교육 등 사회·경제적 과제에 직면해 있어, 문화·여가 지원은 이들의 사회 참여와 제도약을 돕는 발판이 된다.

청년복지는 노인복지만큼이나 중요하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전남에서 노인복지가 필수라면, 청년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결혼, 출산, 경력 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행 연령 제한은 이러한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

전남도는 최소한 청년기본법이 정한 34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청년을 나이로 구분해 지원에서 배제하는 현 제도는 법과 조례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청년이 지역의 미래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문화복지의 문턱부터 낮춰야 한다. 이는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전남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정책은 선언보다 실천에서 힘을 갖는다. 지원 연령 확대는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니라, 청년 세대가 전남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다. 이 한 걸음이 청년의 삶을 지탱하고, 나아가 전남의 미래를 지켜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기고

김경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장 (사)공동체 모다 이사장



연일 섭씨 40도에 육박한 폭염이 지속되더니 난데없는 물벼락까지, 역대 기록을 갈아엎고 달려드는 극한의 폭염과 폭우는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들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진행 속도를 가능할 수 없이 몰려오는 AI시대는 어떠한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몰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 당장 직면한 시민에게는 세대 간의 소통마저 가로막는 형국이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대한 희망마저 내비칠 수 없게 한다.

새로운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제대로 살아 숨 쉬며 작동하는 광주공동체가 되려면 그 밑바탕에 건강한 밑거름의 소통이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거대자본과 집적된 기술이 몰아가는 이 시대의 문법에 따라가지 못하는 시민들이 점차 소외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지역공동체들은 서로 제각각의 다른 언어로 불통이 됐던 아비규환의 고대도시 바벨론을 예감하게 한다. 그동안 '광주공동체 정신'이 위기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생존과 공동체적 연대를 이끌어낸 소중한 기제로 작동했다면, 이제 광주는 주먹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다.

지속가능한 광주마을공동체운동을 위해

1980년 5월 광주는 비극의 한기운에서 경이로운 공동체의 기적을 일궈냈다. 신군부의 폭력적인 진압과 도시의 고립으로 인한 국가 시스템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집사를 유지하고 서로를 돌보는 '광주공동체'를 만들었다. '주먹밥 정신'으로도 말하는 '광주정신'은, 국가가 위기에 처한 억눌린 상황 속에서 더 빛을 발했다. 2024년 12월 3일, 폭력적인 계엄으로 시작된 내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죽은 자가 산 자를 일깨우고 살려내는 강력한 백신으로 '광주정신'은 즉시 작동했다. 허위에 갇힌 허약한 민초들과 위기에 처한 온 나라를 일깨워 정신을 가다듬게 해 줬던 광주. 1980년 5월 피로 지쳐난 민주화와 주먹밥 공동체를 기억에서 다시 불러내 '죽은 자가 산자를 깨워낸' 도시는 의연하게 제 몫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 이 위기 속에서 광주정신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불러오는 큰 힘이 됐다.

그동안 광주공동체에서 발전한 광주정신은 지역의 핵심축으로 의연하게 작동하고 있다. 광주공동체는 45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그 정신을 오히려 지켜오며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단순한 과거의 아픔에 대한 호명만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사회 변화 동력이자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구현의 핵심 가치로 더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공동체 현장 곳곳에서 만난다.

1990년대 후반 광주 북구에서 시작된 광주의 마을 만들기 운동은 5·18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학습을 통해 마을의 문제해결을 시도해 왔다. 이어받아 2009년 시작한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내 집 앞 마을 가꾸기 사업'은 광주마을공동체 운동을 광주 전역에 확산하며 시와 각 구의 공동체 중간 지원조직을 만드는 데에도 일조했다. '주먹밥 정신'이 보여준 나눔과 연대, 대동 정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되는 형태로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적 정치 이벤트나 대선 이후의 사회적 분위기와는 별개로, 풀뿌리 마을공동체의 따뜻한 발돋움은 다양한 각도에서의 지원이 멈추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 승자독식의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의 심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마을공동체 운동이 쌓아놓은 사회적 자산은 불평등을 해소하며 경제적 위기를 풀어나고 재난 위기를 넘어설 민생 회복력의 열쇠다.

역사적 시련과 국가적 대변화 속에서도 광주의 진정한 힘은 풀뿌리 단위에서 싹트고 성장하는 마을공동체의 정신과 이에 부응해 줄 지속가능한 실천에 있다. 그동안 5·18 주먹밥 정신을 통해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에 알렸듯이, 이제는 '자치'와 '연대',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선도적인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게 기반한 광주 마을공동체 운동이 제 몫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눈높이로 바라보고, 그들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와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이 시대에 부응하는 광주의 큰일임에 더 그렇다.

OPINION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사설

광주에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절실하다

광주시가 국가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최근 총사업비 6000억원 규모의 AI 2단계 사업인 'AX(인공지능전환) 실증밸리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성과를 거둔 광주시가 AI 대표 거점도시가 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이의 유치를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최대 2조500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구축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 세부 공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광주시는 다음달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경제단체, 산업계, 종교계, 민간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연다고 한다.

앞으로 유치 전략 자료, 대정부 건의 및 전문가 네트워크 활동, 대국민 홍보와 공감대 확산 등을 통해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지역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국가AI컴퓨팅센터가 광주가 명실상부한 AI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사업이기 때문이다.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AI 기반시설과 생태계를 구축해 온 광주에게 AI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고, 지역 산업과의 동반성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만한 게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된 AI 2단계 사업과 연계한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광주시는 그동안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해 공도 많이 들였다. 정부에 수차례 유치를 건의했고 첨단3지구에 부지와 전력 등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까지 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가AI컴퓨팅센터의 광주 구축'을 약속한데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광주지역 공약'에 포함까지 받았다.

국내 유일의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경험과 인프라·인재·기업 등 AI 생태계가 조성된 광주에 '국가 AI컴퓨팅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신안 공무원 인력난 심각... 대책 마련 시급

신안군의 공무원 인력난이 심각하다. 임용시험을 통해 신규직원을 뽑으면 임용전에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기존 직원들의 다른 지역 진출 또한 잇따르면서 행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안군은 최근 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34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했으나, 이중 3명이 임용을 포기했다고 한다.

이 뿐 아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무원의 타 기관 진출과 사직이 80명에 달하고 있다. 이중 섬 발령 1개월 이내에 그만둔 인원만 15명이다.

여성들의 기피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8월 실시한 '2024년도 제1회 신안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경우 50명 모집에 243명이 지원했는데 이들중 56%가 남성인데 반해 여성은 44%에 불과했다고 한다. 통상 지방공무원 지원 성별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여초'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확연히 차이다.

기간제 근로자 총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158건의 채용 공고를 냈지만, 이 중 63건은 아예 지원자가 없어 인력 재공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환경미화, 산별 감시, 행정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 수급이 막혀 60~70대 고령자가 도로변 정미 및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도시와 멀리 떨어진 근무 환경과 문화생활의 제약 등 섬 근무 특유의 어려움 때문에 근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신안군이 열악한 근무 여건 보안을 위해 직원 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1일 2시간 주어지는 육아시간 대상을 기존 5세 이하 자녀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했고, 임신부 공무원에게는 모성보호 특별휴가를 통해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같은 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진출 등으로 떠난 빈자리의 업무를 남은 직원들이 분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지방행정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섬 지역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실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사 전 부 370-7082 사 전 부 370-705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